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3월 26일(주일) 제1435호



십자가, 사랑의 완성

4월 3~7일 오후 8시 모든 캠퍼스 본당 '2023 고난주간예배'
다섯 가지 죄 회개, 금식기도, 십자가 목걸이, 회개의 십자가

‘2023 고난주간예배’를 드린다. 4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오후 8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십자가, 사랑의 완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설교는 4월 3일(월)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4일(화) 김영련 목사(산호세온누리교회), 5일(수)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6일(목)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7일(금)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에서 2023 고난주간예배 실황을 생중계한다.

2023 고난주간예배에서는 요일별로 다섯 가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의 죄 회개, 화요일 생명 경시에 대한 죄 회개(전쟁, 살인, 인종차별 등), 수요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 회개(환경 파괴, 동물 학대, 진화론 등), 목요일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교회의 죄 회개, 금요일 거룩과 성결로 살지 못했던 개인의 죄 회개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

2023 고난주간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 또 매일 한 끼 이상 나라를 위한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한 금액은 헌금한다. TV, 인터넷, 영화, 게임 등을 자제하는 미디어 금식도 병행한다. 고난주간 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회개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못 박고 회개하는 의식도 할 수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 결과

1,673명, 4억 7천만 원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 행사에서 1,673명의 성도가 4억 7천만 원을 약정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성도들이 봉헌한 후원금을 긴급구호, 더멋진마을만

들기, 어린이생명살리기 등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직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은 전화와 홈페이지(QR코드)에서 참여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성원에 힘입어 말라위 영유아

를 위한 15억 규모의 KOICA 사업을 체결했다”면서 “생명을 살리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02-2271-2246



/ 김영선 기자

CGNTV, CGN으로 사명 변경

3월 29일 오전 10시 개국 18주년 감사예배

CGNTV가 CGN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TV를 뛰어넘어 모든 미디어에서 직접 선교한다는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기 위해서다.

CGN은 올해 신규 콘텐츠 제작, 선교사와 다음 세대, 한국 교회 섬김에 집중하고, 기독교 OTT ‘풍당’을 국내외 보급에 더욱 전념할 예정이다.

CGN 대표 이용경 장로는 “CGN이 TV라는 미디어 틀에서 벗어나 더욱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관련기사 6면>.

오는 3월 29일(수) 오전 10시 서빙

CGN
everywhere, for everyone

고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CGN 개국 18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한편, 3월 25일부터 2023 ‘달려라 풍당’ 참가 신청을 받는다. ‘달려라 풍당’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내가 운동 한 만큼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후원금은 차세대 콘텐츠 제작과 주일 학교 섬김에 사용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장애인 돕고, 재활용 하고!

4월 16일과 23일,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장애인 재활자립시설 ‘굿월스토어’ (밀알복지재단) 기증 캠페인이 4월 16일(주일)과 23일(주일) 서빙고, 양재, 부천(16일만), 수원, 대전, 인천, 강동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서빙고, 양재, 부천은 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기증함에, 수원, 대전, 인천, 강동은 목회행정실로 기증 물품을 가져오면 된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은 나눔, 장애인 돕기, 자원 재활용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아 굿월스토어 매장에서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

재사용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서, 음반, 주방용품,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을 기증하면 된다.

수선이나 세탁이 필요한 의류, 사용 흔적이 있는 물품, 파손되었거나 더러운 제품, 대형 가구나 설치가 필요한 전자제품, 오래된 아동전집은 기증할 수 없다. 방문 수거도 한다. 콜센터(1533-0091)로 전화하면 굿월스토어 직원들이 방문해서 물품을 수거해간다. 문의: 1533-0091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3월 26일~ 4월 1일 ‘생명’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끝나는 부활절(4월 9일)까지 2주 남았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새롭게 생긴 좋은 습관들을 돌아켜 보면 좋겠다.

이미라 성도(서산온누리교회)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반성을 했다”면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김도경 성도(한마음정신회복예배)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했다<관련기

사 10면>.

3월 26일(일)부터 4월 1일(토)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주제는 ‘생명’이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운동 참여하기’, ‘각종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등을 실천하면 된다. 더 다양한 실천방법은 체리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체리앰을 설치하고, ‘MY단체’에 온누리교회를 등록한 다음 ‘캠페인’란에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선택하면 된다.

/ 김영선 기자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현대인들은 십자가에 친숙해졌습니다. 로마 시대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오늘날 우리는 장식품으로 사용하면서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히 십자가를 공동체의 상징으로 사용하리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외곽에 있는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에 가보면 곳곳에 물고기 문양이 남아있습니다. 초대교회, 1~2세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상징으로 물고기를 사용했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ΙΧΘΥΣ)’인데, 익투스의 헬라어 이니셜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약자로 한 물고기 문양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이마 십자가 성호를 그리면서부터 십자가가 공동체의 상징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예언과 기적, 표적과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아들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이념과 상상에서 나온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과 수치의 상징이기에, 흉악한 죄인이 형벌을 받는 사형틀이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까? 역설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바울 서신에 나타난 여러 영적 진리가 역설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파고드는 영적 진리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역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모든 삶의 진리가 역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설
‘하나님의 어리석음’

십자가의 역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는

십자가의 역설

고린도전서 1:18~25

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역설을 극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25절).

어떻게 하나님께 ‘약함’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연약한 모습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놀라우신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2~24).

사람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초월적인 표적을 기대하고,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에서 초월성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창과 칼에 찔려 무참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도한 자들의 창과 채찍을 초월로 이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문화에서 발달된 지식과 지혜가 십자가를 어리석어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식적, 문화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

적 수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문화적인 수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 유적들을 보면 고린도의 화려함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문화, 지혜가 힘과 영향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단순한 십자가, 거침없는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당시 헬라 사람들이 원하는 화려한 수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리한 말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의 모든 메시지가 화려해지면서 십자가의 단순함, 십자가를 거치는 것, 십자가의 끔찍함을 외면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의 교양과 문화, 지식과 우리의 기호와 생각을 달콤하게 하는 이야기에 만족하는지 모릅니다. 매주 예배당에 모여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무슨 생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할까요? 온통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 밖에 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어째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첫째, 세상의 지혜로는 모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형벌만을 가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형벌이 가해지지 않고 용서하신다면 사랑은 만족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허락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성품에 대한 충돌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에서 맞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는 꾸짖어야 합니다.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사랑이 더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괴로움 속에 행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설을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 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호 11:8-9).

‘내가 어떻게’라는 표현이 네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셔야 하는 일과 사랑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이 계속 충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지혜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성하려고

둘째, 왜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데 일격에 사탄의 권세를 제거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 가운데 타락한 영혼들, 죄 가운데 파괴된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일 없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사탄에 의해서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패배자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창조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탄의 모

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과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한 사탄은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종교적 상징으로만 존재한다면 사탄은 결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문화로만 존재한다면 사탄은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창조계획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 계획을 완성해가고 계십니다.

진정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셋째,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진정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고전 3:18~19).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문장에 나오는 어리석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역설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

서 분별력 없이 어리석은 자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졌음에도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지혜가 왜 어리석습니까? 이생만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생에 집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많은 꾀가 지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왜 어리석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왜 우리가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구원을 받아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구명보트에 탄 것입니다. 지금 안전한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도착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출되고 있는 중이고,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이었고, 무서운 장벽이

있던 죽음이 영생에 이르는 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없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진정한 지혜 되신 십자가를 향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대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소망이 되고, 그 시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민족시인 윤동주 선생님의 ‘십자가’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괴로움 속에 행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시대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역설을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과학의 기반은 견고하지 않다!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우리는 과학적 사실이 실험적 검증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반이 견고할 것이며, 증명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또 과학주의자는 과학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만 참이며, 과학만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강조한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과학철학 장석 교수(과학, 철학을 만나다)에서 과학적으로 관측된 사실들은 많은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제가 무너지면 과학적으로 관측된 것도 거짓이 된다고 말한다. 즉, 과학적 사실의 기반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이 100℃에서 끓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물이어야 하고, 1기압의 환경에서 용기 전체표면에 균일하게 기포가 발생할 때 온도라는 조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의 비등점 측정 같은 간단한 과학실험에도 이렇게 많은 전제 충족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학주의는 전제가 되는 여러 가정의 중요성은 모두 배제하고, 그 전제에서 관측한 결과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직접적 측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적 지식의 기반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시기에 천재적인 과학자가 나타나서 그때까지 관찰된 자연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한다. 그 원리에 의거해서 몇 가지 실험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다른 학자들을 설득하면 그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패러다임이 생성된다. 그 기반 위에 형성된 정상과학에서는 과학자 대부분이 그 원리와 일치하는 현상들만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정상과학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그 원리

발견된 모든 사실은 흔적도 없이 부정되는 현상을 보고 과학의 발전은 혁명적이고, 이전 패러다임의 지식과는 공약 불가능하며, 축적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과학적 지식의 기반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현미경이 처음 발견되면서 영국의 로버트 후크는 코르크나무 껍질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발견한 구획을 다락방처럼 비어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cell(세포)’이라고 불렀다. 최초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진화론자들이 유기물 다량

될 수 있는 것만 참이다”라는 과학주의자들의 주장은 자기 부정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참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 주장은 과학에 대한 철학적 진술로서 “무엇이 과학인가?”, “과학적 검증이란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가?”, “어떤 수준의 검증을 통과한 것을 참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등 철학적 논의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한 다음에야 이 말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론으로는 그들이 한 말의 진위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은 자기 부정적이며 참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모어랜드는 과학적 발견의 견고성은 그 전제에 대한 철학적 논증의 견고성을 결코 능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은 과학계에서 현재 독재적인 진리로 주장되고 있다. 그것은 <종의 기원>에서 다윈이 제안한 가설을 무신론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패러다임화 한 것이다. 다윈은 이 책에서 생물 진화의 지질학적 기록인 중간화석이 그때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지만, 중간화석들이 앞으로 많이 발견될 것을 기대했다. 만약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자신의 진화이론이 부정될 수도 있음을 그 책에 서술한 바 있다. 아직까지 다윈이나 진화론자들이 기대하는 종과 종 사이의 중간화석은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다. 이제 진화론을 반박하는 결과들을 종합해 후속 세대를 설득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다. 그 설득이 성공할 때 진화의 패러다임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진화론을 반박하는 결과들을 종합해 다음세대를 설득해야 한다. 설득이 성공할 때 진화의 패러다임은 사라질 것이다.”

와 충돌하는 결과들이 많이 축적되면 이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원리가 제시된다. 그 새로운 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전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과학의 발전과정에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뉴턴의 역학에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 있었다.

과학적 발견에는 논리적 기반이 되는 전제가 필요하며, 그것이 패러다임이다. 그런데 그 기반은 반석이 아니라 나뭇배처럼 흔들리고 뒤집힐 수 있다.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이 일어난 후에는 이전 패러다임 위에서

체인 DNA나 단백질이 적당히 모여 세포가 저절로 생겨났을 거라는 주장에는 후크가 관찰했던 빈방같이 간단한 세포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은 세포 속에 핵과 수많은 세포 소기관들의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이전 세포생물학의 기반을 뒤집었다. 또 허블우주망원경(1990년), 제임스 웹우주망원경(2023년)으로 관찰하는 우주는 갈릴레이 시대의 망원경으로 관찰한 것과 내용과 범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이처럼 측정 장비의 발달이나 새로운 개념의 도입은 과학의 기반을 뒤흔들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철학자 J.P. 모어랜드는 “과학에 의해 검증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은혜의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를 ‘특별은혜(Special Grace)’의 영역이라고 한다. 반면 모든 사람에게 구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의 영역은 ‘일반은혜(Common Grace)’라고 한다.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는 모든 영역과 사람들에 지금도 미치고 계신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마 5:45).

일반은혜는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John Calvin)이 강조했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에 이어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체계화했다. 특히 카이퍼는 일반은혜의 개념을 “모든 세상 영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그 유명한 영역주권으로 확장했다.

비록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왜곡되고

타락하였으나(롬 8:22), 하나님은 여전히 일반은혜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예술에 대한 아름다운 창작능력과 감수성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사랑의 인사(salut d’amour)’라는 감미로운 바이올린 곡은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가 그의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만든 걸작이다. 찬송가 작가들의 작사나 작곡의 배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간증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에 상관없이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준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면서도 그의 후손인 야벳, 셸라, 두발가인을 각각 축농업, 금속가공업, 음악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창 4:20-22). 하나님은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법칙들을 만들고 주관하신다. 교회의 높은 지붕 위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과학 법칙을 그분의 변치 않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백신주사를 맞고,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신 하나님의 일반은혜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극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탄의 시험으로 해석하기보다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이성적 고찰과 반성이 오히려 신앙적인 경우가 많다.

일반은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영원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원화하는 루터파의 오류를 현대 교회에서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정지되거나 부재한 경우가 없었던 일반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특별은혜로 구원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찾게 되어 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이 아직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백성들이 있는 세상을 본능적으로 보게 된다. 일반은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한 어색한 걸음

에 매우 중요한 당위성을 부여한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접점을 제공하고,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이원적 신앙형태를 지양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한국 교회는 특별은혜와 일반은혜의 교육 균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반은혜의 영역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법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특별은혜만 누리며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무엘은 결코 이 시대 모든 신앙인의 표본이 될 수 없다. 특별은혜를 경험한 자의 뜨거운 영성과 일반은혜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신무환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

남녀 혼인의 진정한 가치

동성결합 승인한 서울고법 판결의 문제점



이상현 집사
(강남E공동체,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남성 A와 B가 2017년부터 동거하고, 2019년 결혼식을 했다. 남성 B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행정1-3부)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남성 동거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남성 A(직장가입자)와 남성 B(무직)의 동거 관계를 '동성결합'으로 파악하면서 혼인신고 없이 혼인 의사와 외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B에게도 인정하면서 B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1심에서는 재정건전성 등 공익적 요소와 민법상 사실혼 개념에 기반해 건강보험공단의 B에 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면서 B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불허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취업 근로자에게 '직장가입자'로서, 국내 거주 무직자에게는 '지역가입자'로서 각각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되면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지역가입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준다.

현재 건강보험법 기타 어떤 법령에서도 동거 특히 동성(同性) 간 동거를 가족이나 사실혼에 유사한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에서 양성(兩性)에 기반한 혼인 가족 질서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제36조 1항)한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동성 간 동거를 '동성결합'으로 사실혼과 차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이들의 관계를 가족·사실혼에 준해서 보호하겠다는 판시를 한 것은 이 시대 혼탁한 혼인·가족관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어야 한다.

남성 B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총합 115,560원으로 한 달 14,500원이다. 통상 이 수준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1심의 패소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으로 소송을 꺼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법정 투쟁 의지, LGBT 옹호 단체의 후원 및 트랜스젠더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처럼 경악할 만한 판결을 유도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소송과 판결이 진정 월 1만5천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회적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동성 결혼을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기획소송인지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크리스천들도 헌법과 현행법제에서 인정하는 양성(兩性)에 기반한 혼인과 가족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 정도의 의지, 후원과 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판결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경악할 만한 판결의 네 가지 문제점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법률·시행령이 아닌 내부 업무지침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포함시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오고 있는 바, 사실혼은 사회적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관계에서만 법적으로 보호되어 왔다. 혼인 의사 없는 이성 간 동거나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라도 혼인이 불가능한 동성 간 동거는 사실혼 관계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 법령·판례가 대한민국에서 존재한 적이 없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사실혼, 즉 중혼적 사실혼과 혼인이 불가능한 근친 간 사실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도 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혼인할 수 없는 남성 동성 간 동거도 '사실혼과 같은 정서적·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며 사실혼과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사회윤리, 가족관계에의 과장, 생활동반자법이나 동성혼에 대한 여론의 시각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중혼관계나 근친 사실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어떤 국제조약도 명시적으로 동성 간 결합의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한 바가 없다. 심지어 EU 인권재판소도 동성혼 여부는 EU 회원국 각국의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의 한 재판부가 동성결합의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와 다를 바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동성결합 보호입법을 한 것과 유사하다. 월권적 사법 판단을 한 것이다. 참고로 국회에 제출된 동거보호법안은 여론의 반발로 모두 철회되었다.

둘째, '성적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 차별들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남아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는 판시도 오류를 포함한다. '동성에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1993년 연구가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면서 선천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듯했지만, 후속 연구들에서 동성에 유전자 주장은 부정되어 왔다. 2018년에는 미국 하버드대, 영국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동성에 경험 있는 47만7,522명의 유전체 연구에서 동성에 관련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결과가 <사이언스(Science)>지(2019년)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성애가 환경적·후천적 요인에서 비롯된 거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였지만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미 미국과 서유럽에서 동성결혼법까지 제정된 후였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성적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오류 있는 인식과 향후 차별들도 언젠가 폐지될 것이라는 소망까지 드러내고 있다.

셋째, 동성 커플의 증가와 평등 원칙 적용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생존 배우자에게 부여되었던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 커플의 생존 상대방에게도 확대 적용한 U.S. v. Windsor 판결(2013년) 이후 2년 만에 동성혼 합법화 판결(Overgefell v. Hodges)이 나왔다. 영국의 2004년 생활동반자법(동성커플의 법적 부부에 준하는 기본권 보장)은 2014년 동성결혼법으로, 프랑스의 1999년 시민연대계약(결혼하지 않아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 결합 제도)은 2013년 동성결혼과 입양 합법화로 이어졌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이성 부부에게 허용되었던 입양, 보조생식기술(정자·난자기증, 대리모)이 동성부부에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동의 정서·정신 보건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ark Regnerus, SSR vol.41 Issue4, 2012)는 창조섭리를 드러낸다.

넷째, 동성결합 보호법이 이성 간 동거 커플에게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생식과 해소가 혼인보다 용이하기에 혼인에 대한 부담감 해소라는 방편으로 '동성 간 및 이성 간 동거 문화 확산'으로 이어진다. 혼전 동거를 경험한 부부는 동거 없이 혼인한 부부보다 이혼율이 현저히 높으며, 이혼할 때 자녀에게 상처를 남긴다. 손쉬운 동거와 헤어짐, 이혼율 증가, 혼외출산율 증가는 출생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이들이) 성장하여 혼인을 감소, 이혼율·동거율 증가로 나타나 다시 혼외출생 증가로 이어진다. '동거 확산→이혼율·혼외출산율 증가→아동의 정서적 불안→혼인을 감소, 이혼·동거율 증가'라는 가족관계의 중대한 변화는 우리 사회를 지탱할 소중한 가족의 기반이 흔들림을 의미한다.

남녀 부부의 혼인으로 출생·양육된 자녀의 안정

혼인·가족의 성경적 가치를 지켜나갈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돌출적 판결에 영향받아 동성결합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거나 기독교계에서도 동성혼을 수용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 반대하자. '남녀 부부의 혼인과 이를 통해 출생·양육된 자녀의 안정'이라는 진리를 사랑으로 알려야 한다.

사랑하는 관계면 어떤 결합이든 성관계가 관철된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하신 혼인이라는 질서 안의 성적 자유를 원하신다. 동성 간 성관계를 장려하는 법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위해 기도하며 법률·법학 분야 종사자들에게 남녀 혼인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권면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란다.

CGN

CGN 리브랜딩!

선교미디어 CGN, 어디서나 모두에게



CGN 대표 이용경 장로와 함께

CGNTV가 CGN으로 다시 태어난다. CGNTV가 회사 이름을 'CGN'으로 변경한다. TV를 뛰어넘어 모든 미디어로 어디서나 모두에게 더욱 다양한 기독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CGN은 다음세대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데 집중하고, 기독 OTT '풍당' 글로벌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CGN 대표 이용경 장로에게 CGN 리브랜딩에 담긴 의미와 새로운 비전이 무엇인지 물었다. 다음은 이용경 장로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CGN이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CGN 리브랜딩은 갑자기 진행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시청자와 후원자들과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CGNTV의 역할이 변화되었고, 적당한 때가 되어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CGNTV의 역할과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인 선교사와 디아스포라를 위한 위성방송으로 개국한 CGNTV는 그동안 케이블, IPTV, 모바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2년 전에는 국내 최초 기독 OTT ‘풍당’을 출시하고, 깨끗하고 균형 잡힌 미디어 소비환경을 구축했습니다. CGNTV는 그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와 한국 교회에도 선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CGNTV의 역할과 CGNTV를 향한 인식이 변했습니다. 미디어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TV와 위성만 한인 선교사와 디아스포라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미디어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TV와 위성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해서 개인의 공간에서 미디어를 접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자 리브랜딩 하게 되었습니다.”

CGN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슬로건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변경된 CGN의 로고는 콜론(:)이 모티브입니다. 콜론은 성경의 장과 절을, 대본에서 등장인물과 대사 사이를 구분합니다. 콜론 뒤의 대사로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CGN 뒤에 붙는 말들로 CGN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미디어 기술과 환경이 변했듯이 선교의 현장

도, 교회의 입지도 많이 변했습니다. 선교가 국경을 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대와 문화와 이념의 벽을 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CGN은 새로운 영역에서 다양한 사역과 도전을 할 것입니다. 이는 진리 안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CGN의 자유로운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CGN의 새로운 비전은 ‘선교미디어 CGN 어디서나 모두에게’입니다. CGN은 선교가 사명이자 정체성인 미디어, 복음이 필요한 곳 어디서나 통로가 되고, 함께하는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꿈꾼다는 뜻입니다.”

CGN 리브랜딩을 계기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CGNTV가 지금까지 선교사를 돕는 역할을 했다면, CGN은 직접 선교하는 미디어입니다. 전통적인 선교의 의미는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국경을 넘는 것에서 국한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

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도록 돕는 것 또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CGN은 다음세대와 한국 교회를 키워드로 새로운 사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후원을 이끌어 내서 다음세대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것입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후원챌린지 ‘달려라 풍당’ 챌린지와 풍당교회학교 프로젝트를 매년 하는 것도 다음세대와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도 미디어 사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목회에 관한 고민이 커진 한국 교회 사역자들에게 미디어 사역 노하우를 전수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는 5월에는 ‘풍당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한국 교회 사역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독 OTT 서비스 ‘풍당’의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먼저 영어로 제작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앞으로 CGN은 시공간, 언어를 뛰어넘어 어디서나 모두가 복음을 만날 수 있는 ‘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 (Christian Global Network)를 구축할 것입니다.”

CGN 리브랜딩 첫째 주요 계획과 목표를 알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세대와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해외 지사와 글로벌 서비스를 통

한 네트워크 구축, 신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후원자님들께서 ‘다음세대’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에 후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올해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달려라 풍당’ 챌린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달려라 풍당’ 챌린지 후원금으로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고고 바이블> 글로벌 버전 제작과 키즈 콘텐츠 <우리 몸으로, 풍당!>, <바이블북: 성막 대작전>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 교역자나 교사가 없어서 교회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를 돕는 ‘풍당교회학교’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미있는 콘텐츠도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7일 공개되는 <이스라엘로 오십시오>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돌아보는 콘텐츠인데 정말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이외에도 7월 오픈 예정인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사사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가는 <사건21>, 어린이들에게 성막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바이블북: 성막대작전>, 바울의 발자취를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한 스토리 다큐 <바울로부터> 등의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늘 CGN과 함께해주시는 성도님들과 후원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도제목도 나눠주세요.

“CGNTV가 올해로 개국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사랑, 후원 덕분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CGNTV와 동역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CGN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새롭게, 더욱 풍성하게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언제나 응원해주십시오. CGN이 제작하는 콘텐츠가 선교지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CGN이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CGN 후원자가 5만 명이 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미주,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해외 지사에도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보내주시고, 현지 교회들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CGN의 신규 프로그램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순장!

최고령 순장 김희수 권사의 아름다운 고백

“1년만 대신 우리 손을 맡아달라”는 전임 순장의 부탁이 무려 30년이나 이어졌다. 김희수 권사(83세, 이촌공동체)가 30년 동안 순장으로 섬긴 계기가 바로 그것이다.

김희수 권사는 지난 3월 1일 열린 순장 영성수련회에서 김영배 순장(86세, 성동광진공동체)과 함께 최고령 순장상을 받았다. “영터리 신자였던 내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순장으로 섬기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순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순장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김희수 순장을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순원들과 함께하는 순장이고 싶다”는 김희수 순장(왼쪽), 김희수 순장과 순원들(오른쪽).

김희수 순장에게 ‘최고령 순장상’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요즘 김희수 순장이 남편 김현철 장로(86세) 병간호로 정말 바쁘고 힘들기 때문이다. 김현철 장로가 지난 1월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거동이 힘든 상황인데도 순장으로 섬김을 이어가고 있기에 더욱 뜻깊었다.

“저는 남편 병간호를 괴로움으로 느끼는 자격 없는 아내이자 순장입니다. 그런 제게 ‘최고령 순장상’이라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희수 순장은 드러내기 싫고, 가리고 싶은 자신의 약함까지 솔직하게 인정했다. 오히려 그런 면이 지난 30년 동안, 나이 83세가 되어서도 최고령 순장으로 섬기는 비결 아닐까?

함께 울고 웃는 순장 30년

최고령 순장으로 섬기는 김희수 순장의 신앙 이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김희수 순장이 의외의 고백을 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네게는 복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잔소리로 치부했습니다. 학교 채플 수업도 늘 불평하며 들었습니다. 그 황금같은 시절을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참으로 교만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김희수 순장의 신앙이 180도 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다. 온누리교회에 오면서부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

“딸이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고모 소개로 온누리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딸이 온누리교회에 다녀오더니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다’면서 우리 가족을 온누리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여러 교회를 소경하듯 다녔습니다. 그런 제가 온

누리교회에 오면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온누리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온 지 1년 정도 되었을 무렵 그녀에게 어이없는 부탁이 들어왔다. 순장 의뢰였다.

“당시 최봉자 권사님이 미국에 가시면서 1년만 손을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순장 교육이 없었습니다. 열떨결에 최봉자 권사님 대신 순장이 됐는데, 1년이 지나도 최 권사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웃음).”

김희수 권사의 30년 순장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다. 첫 순원은 세 명이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첫 순원이 세 명이었는데, 그분들 얼굴도 모르고 순장으로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인 순장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순장을 맡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원들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30년 베테랑 순장으로서 손을 이끄는 노하우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김희수 순장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순장이 순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순원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게 핵심입니다. 기도제목으로 내놓을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사연을 가진 순원들을 위해 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눈물 어린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신 것처럼, 순원들의 발을 씻겨주는 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원들이 어려울 때, 울고 있을 때 기도하는 순장이 가장 좋은 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순장으로 섬기면서 정말 다양한 순원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가슴에 새겨졌다.

“기억에 남는 순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은 처음 교회에 나온 순원이었는데 그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순원이 나중에 퇴직금을 교회에 헌금하시면서 ‘순장님 덕분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저보다 더 열심히, 더 잘 믿는 성도가 된 것을 보고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모시려고 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던 일이 잘 안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그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으로 오세요! 내가 당신의 아픔을 나눠주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순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노환으로 집에서 요양 중이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원들과 목사님께 함께 그 권사님을 만나러 가자고 연락했습니다. 지금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아서 못 볼 것 같다고 했더니 다 같이 모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그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가 그 권사님께서 이생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예배드리면서 그 권사님이 우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30년 동안 총 여덟 분이나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아직도 그림고, 그분들과 보낸 모든 시간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감사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김희수 순장이 지난 30년을 회고하면서 감회에 젖었다. 온누리교회 모든 순장들에게 전하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감사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지난 30년간 순장으로 섬기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매일 교회 뜰을 밟으면 새 소망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부활절에는 삶은 달걀에 예쁜 그림을 그려서 거리에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를 전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정말 좋아서 교회 오는 지하도도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정성을 담아 정갈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능력이 있고,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크고 많아서입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순장으로 세워주시고, 순원들이 저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순에 76세부터 94세 권사님 15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순원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여러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순장님들이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꼭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순원을 사랑으로 섬겨달라는 당부입니다. 순원들의 발을 닦아주는 순장,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순장이 되십시오. 저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순장이 되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이주민 선교 파종!

서산온누리교회 ‘서산M센터’ 건립 중

충청남도 등록이주민이 6만 2천 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섬기는 교회나 기관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비전과 좋은 모델도 찾기 힘들다.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바로 그 사역인데 말이다. 그래서 서산온누리교회가 두 팔 걷어붙였다. 서산온누리교회가 충청남도 이주민 선교를 파종한다. 이주민 선교에 뜻이 있는 서산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선교사가 모여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서산M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새로운 하나님의 꿈 서산M센터의 비전과 포부를 소개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서산온누리교회 이주민사역팀과 한국어교실에 참석한 이주민 근로자들.

충청남도 서산시를 비롯해 예산, 태안, 당진에 공장과 농장이 많다. 서산, 예산, 태안, 당진 등지에만 등록된 이주민 근로자가 1만 명이 넘는다. 이우진 선교사(서산온누리교회)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면 더 많은 이주민이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충청남도 서산은 이주민들을 정말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공장이나 농장에는 한 곳도 빠짐없이 이주민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주말에 서산 버스터미널에 가보면 주변 도시에서 오는 수많은 이주민을 볼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충청남도 서부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이 오가는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서산시는 이주민들을 만나고 섬기기 좋은 도시인데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와 기관이 전무합니다.”

실제 서산시 인근에 이주민 관련 기관은 각 지자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전부다. 공기관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이주민들의 특성상 민간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서산시 인근에는 민간 이주민 기관이 없다. 이우진 선교사가 나서서 여러 민간, 종교 기관과 이와 관련한 논의를 했는데, 대부분 이주민 선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임용성 목사(서산 온누리교회)는 서산온누리교회도 처음에는 이주민 선교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서산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에는 열심인데, 이주민 사역까지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산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주민, 눈앞에 온 선교지

서산온누리교회는 여름 아웃리치가 뜨겁기로 자타가 공인한다. 매해 여름 서산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아웃리치에 집중한다. 아웃리치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일꾼 류조일

집사(서산온누리교회)도 눈앞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다.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데 이주민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은 눈앞에 온 선교지였습니다. 선교지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주민선교팀이 생겨났습니다. 지난해에 한국어선교학교를 수료하고,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서산온누리교회의 이 변화는 선교사들이 만들어냈다. 2020년부터 선교사 세 가정이 서산온누리교회에 출석했다. 이우진 선교사도 그즈음 기존의 사역을 정리하고 서산 지역 이주민 선교를 비전으로 품고 서산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서산으로 내려오면서 이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습니다. 현지 조사와 서산온누리교회와의 동역을 위해서 서둘러 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서둘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충남서부지역(서산당진태안) 이주민 선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최근 이주민들과 교제하던 한 성도가 서산M센터 건립에 사용해 달라며 헌금을 봉헌했고, 그 헌금으로 서산터미널 인근에 상가를 얻었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를 할 금액이 없어서 후원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

문의: 010-7655-0275

후원계좌: 국민은행 462601-04-592418(서산M센터)

선교사 칼럼



이우진, 유현희 선교사 (서산M센터)

지난 2020년 8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13년 해외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내려놓고 국내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하면서 선교

의 새로운 전력이 요구되는 게 현실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이주민들이 선교의 새로운 대상이 된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열방으로 나아가던 선교 시대에서 열방에서 불러 모으는 선교 시대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나님의 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동남아 V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헌신해서 목회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가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했거나 이주근로자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와 직업도, 경제적인 안락함도 내려놓고 헌신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의 귀한 헌신으로 교회가 하나둘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끝까지 굳게 서서 견디는

의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게 현실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이주민들이 선교의 새로운 대상이 된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열방으로 나아가던 선교 시대에서 열방에서 불러 모으는 선교 시대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나님의 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동남아 V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헌신해서 목회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가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했거나 이주근로자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와 직업도, 경제적인 안락함도 내려놓고 헌신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의 귀한 헌신으로 교회가 하나둘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끝까지 굳게 서서 견디는

새로운 꿈 서산M센터!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선교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국에서의 이주민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국내로 복귀해서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입니다.

한국에 돌아와 남양주 온누리M센터를 섬기며 이주민 선교를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5개 온누리M센터가 이주민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누리M센터 이주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저희의 작은 시도와 경험이 한국 교회의 이주민 사역의 줄

은 모델과 가이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저희를 김포, 안산, 화성, 평택으로 이어지는 서부해안 라인을 따라 내려가는 충남 서부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산온누리교회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는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 이유로 본국을 떠나 한국에 거주하게 된 이주민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가득합니다.

온누리M미션 30주년, ‘또 하나의 열매’

근로자로 왔다가 사역자로!

캄보디아 빠으 형제의 신앙 그리고 삶

고향으로 돌아간 빠으 형제가 가족들과 해 후했다. 훌쩍 커버린 조카가 빠으 형제의 목 단연 돈이다. 이주민들이 한국행을 택 하는 이유 말이다. 이주민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몸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가는 것보다 큰 목표가 있 을까? 있다. 온누리M미션이 바로 그것 을 선물하고 있다. 온누리M미션이 한 국에 온 이주민들에게 예수 믿는 삶과 하나님의 비전을 선물하고 있다. 수많 은 이주민이 온누리M미션 덕분에 하나 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꿈꾸고 있 다. 근로자로 한국에 왔다가 10여 년 만에 사역자로 파송 받은 캄보디아 빠 으 형제의 신앙과 삶이 그것을 증거하 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왜 십자가 목 걸이를 차고 있냐”고 물었다. 그 순간 빠으 형 제는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다’ 는 기도제목을 고국에 오자마자 이뤄주 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조카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멋으로 거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 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걸었다’ 고 말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는 데 캄보디아에서는 십자가 목걸이만으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서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조카도 예 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제 삶의 비전으로 세웠던 ‘캄보 디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다’ 는 기 도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21살 빠으 형제 그러나...

2012년 3월 4일 빠으 형제가 한국에 도착했 다. 21살 빠으 형제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 처음 일한 곳은 인천광역시 인근에 있는 ‘가 스 스프링’ 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일은 쉽지 않았지만 젊고 목표가 있었기에 나쁘지만은 않았었다. 공장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캄보디아 교회 목사님께 추천받은 교회에 출석했다.

“저는 중학생이 될 때부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 뒤로 교회를 꾸준히 다녔는 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는 않았습니 다. 당시 한국에서 캄보디아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 고 싶은 마음이 커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2016년 아는 형이 빠으 형제에게 안산M미 션 캄보디아 공동체를 소개해줬다. 안산M미 션 캄보디아 공동체는 그야말로 가족 같은 공동체였다. 서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사는 형제자매들의 삶이 빠으 형제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말이면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 니다. 일이 많이 힘들어서 주말에 쉬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주일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배우고 나서는 꼭 주일성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빠으 형제는 캄보디아에서 카페를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드는 비전을 품고 있다.

캄보디아에 안산M센터 같은 예배 공간을

이주민 근로자들이 주일예배를 드리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가장 먼저 포기해 야 하는 게 돈이다. 주말에 특근하면 일당이 쏠쏠한데 빠으 형제는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 해 주말에는 특근하지 않았다. 더 많은 돈을 준다는 공장들의 스카우트에도 흔들리지 않 고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공장에서 묵묵히 일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전혀 아쉽지 않다. “비자가 끝나서 캄보디아로 돌아갈 때가 다 가왔을 때 마음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캄보 디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직업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고 많은 돈을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 다. 캄보디아에 안산M센터 같은 예배 공간을 세우는 비전입니다.”

빠으 형제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카 페를 차려서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캄보디아로 돌아간 다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안 에 카페를 여는 게 목표라며 온누리교회 성 도들께 기도를 부탁했다.

“저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 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길을 보여주셨습니 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여는 카페를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 도해주시시오”

선교 칼럼



노규석 목사
(온누리M미션
본부장)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 기대한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설 문에 응답한 외국인 약 8%만 교회에 출석한 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동 안 최소 한 번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

다. 우리가 더욱 힘써서 이주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해야 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주민들이 주로 가족이나 같은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에 게 전도되는 비율이 무려 71%에 달한다는 점 이다. 더불어 75%나 되는 응답자가 가족과 자국민 이주민들에게 초청을 받아 교회 행사 에 참석했다가 교회에 대한 호감이 생겼다고 했다.

또 교회에서 자국민을 사귀고, 노동 상담을 받고,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에 매우 큰 매력 을 느꼈고,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가 가장 진성성 있고, 우호적인 종교라고 인식하고 있 었다. 앞으로 이주민 교회와 사역이 더욱 성

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다. 이주민들에게 다가갈 때 절대 그들을 선교 실적 달성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다가 갈 때 진정한 영적 변화가 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음 30년 이주민 선교를 준비하면서 외국 인 근로자, 다문화가정과 차세대, 유학생 사 역, 난민사역, 역파송 선교, 이주민 비즈니스 선교, 다국어 미디어 선교, 다문화 상담 영역 까지 분야별 전문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M선교사들, 외국인, 한국인 목회 자, 다문화 차세대 리더들이 각 영역에서 하 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전문성을 발 휘하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2024년 한국 교회에 ‘4차 로잔

서울대회’를 개최할 기회를 주셨다. 전 세계 200여 국가 교회 및 선교, 차세대 리더 5천 여 명이 참석할 것이다. 4차 로잔 서울대회는 한 국 교회에 주신 이주민 선교 모델을 다른 국 가 교회들과 나누고, 세계 복음화 전략적 모 델로 발전시킬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서 한국 이주민 교회 및 단체들과 함께해야 한다. 그 모든 과정에서 온누리교회가 세계 선교의 역동성을 일으키는 촉매제로 쓰임 받 기를 기도한다.

올해와 내년은 한국 교회와 온누리교회, 그 리고 이주민 선교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터 닝포인트가 있을 거라 예상한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주민 선교 터닝포인트

신앙과 생활(살림편)

환경도 지키고, 살림도 하고!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하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가 한창이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환경을 아끼고, 가꾸어나가는 성도들의 실천 운동이다. 4월 9일(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캠페인에 기자도 동참했다. 기자는 살림하면서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실천을 했다.

기자는 평소에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정돈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한다. 유튜브나 SNS에서 ‘프로살림러’들의 브이로그(비디오 블로그)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그런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다양한 정리 용품들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리하려고 정리 용품을 사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고민을 단번에 덜어주는 방법이 있다. ‘물건 재활용’이다. 재활용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의 여러 실천 사항과도 연결된다. 이면지 활용하기, 집 청소하고 정리한 옷과 생활용품 기부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등을 실천사항으로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일회용품 다시 쓰기’를 살림에 적용하면서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일회용품 다시 쓰는 방법과 유익



기자의 살림 속 창조질서 회복실천. 커피 캐리어 수납바구니, 컵홀더 냄비받침.

기자의 집에는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이 없다. 시은품으로 받은 장바구니와 종이쇼핑백을 쓰레기통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바구니와 종이쇼핑백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씌워 사용한다. 더러워지거나 찢어져도 부담이 적다. 버리고 남아도는 새 종이쇼핑백을 또 이용하면 되니까.

커피 캐리어를 수납바구니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기자가 평소 가장 많이, 가장 애정하는 재활용 방법이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음료 두 잔 이상을 주문하면 종이 캐리어에 담아주는데, 상자 손잡이 부분을 잘라내면 아주 좋은 수납바구니로 변신한다. 영양제 수

납, 소스(케첩, 마요네즈, 액젓 등) 보관, 속옷
이나 여성용품 넣어 정리하기, 자잘한 화장품
과 필기도구를 수납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종이 캐리어를 재활용하면 플라스틱 바구니
를 몇 개나 사지 않아도 된다.

컵홀더 재활용도 기자가 많이 하는 재활용 방법이다. 컵홀더 4~5개를 한 방향으로 겹쳐서 꽂아주면 아주 훌륭한 냄비받침이 된다. 종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뜨거운 프라이팬, 냄비도 문제없다. 컵홀더 냄비받침은 기름병 받침으로도 정말 좋다. 기름이 흘러서 싱크대가 더러워지는 걸 방지해준다.

기자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

이다. 주방세제와 세탁세제를 친환경 제품으로 바꿨고, 신발도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구입했다.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환경에 좋은 게 결국 나에게도 좋다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다.

기자가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게 또 있다. 장바구니 챙기기다. 기자는 평소에도 스마트폰도 안 들어가는 핸드백 대신 에코백을 주로 사용한다. 장바구니를 에코백 안에 꼭 챙긴다. 슈퍼, 편의점, 잡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에코백이나 장바구니에 넣으면 비닐봉투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 제품을 2년 더 사용하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탄소 배출을 82%나 줄일 수 있다고 한
다. 예쁜 살림, 깔끔춤한 수납 용품을 사서 정
리정돈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
때마다 기자는 지구를 생각한다.

우리가 빠르게 소비하고 버리는 모든 행위 뒤에는 자원 고갈과 환경파괴, 오염이 뒤따른다. 재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나와 지구에게 유익하다. 살림 예쁘게 하려고 자원을 낭비하고, 쓰레기를 양산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킨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직장과 일상에서도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선물 같은 하루, 선물 같은 세상

이미라 성도(서산온누리교회)와 김도경 성도(한마음정신회복예배)도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미라 성도는 서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미용실에서 일회용품 많이 씁니다. 파마나 염색할 때 쓰는 헤어캡이나 페이스 필름,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데, 시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확 없었습니다. 우선 직원들에게 말이 적힌 개인 컵을 선물했고, 손님들에게 잘 설명하고 종이컵 대신 일반 컵으로 음료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대신 빨아서 쓰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물 마실 때마다 기분 좋아진다’고 하고, 손님들은 교회에서 좋은 캠페인 한다고 칭찬해주십니다.”

이미라 성도는 EM세제나 고체비누, 장애인
사업장에서 만든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배달
음식 주문 안 하기 등도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시순절



개인 컵을 사용하는 이미라 성도와 직원들(사진 왼쪽),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폐의약품 분리수거 등을 실천하는 김도경 성도(오른쪽),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 같다고 느꼈습니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 길에 핀 풀 한 포기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선물 같은 하루, 선물 같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그리고 참 기쁨

김도경 성도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걷기, 전기 플러그 뽑아놓기, 에너지 아끼기 위해 소등하기, 노트북에서 안 쓰는 파일 삭제하기, 실내적정온도 20도로 유지하기,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대중교

통 이용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서 쓰기, 폐의약품 분리수거 하기, 잔반 안 남기기 등 일상이 온통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에서 알려준 사항을 모두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동참했는데, 실천하면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실생활에서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 그동안 감사한 줄 모르고 지나갔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도경 성도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작은 거라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창조 질서 회복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소소한 것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 가스펠프로젝트(OGP) 개강

각 공동체 양육담당 총무에게 신청

나눔 중심의 소그룹 성경공부 ‘온누리 가스펠프로젝트(OGP)’ (이하 OGP)가 개강한다. 4월 3일(월) ‘구약 2권(하나님의 구출계획)’, 4월 10일(월) ‘구약 3권(약속의 땅)’ 과정이 온라인(Zoom)으로 오후 8시에 진행된다. 8주 동안 이어진다.

OGP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는 온누리교회 비전을 따라 준비한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이다. 총 12권(구약 6권, 신약 6권)으로 구성된 통합교재 <가스펠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인도자 포함 5명 내외의 소수 인원이 모여 각 단원의 핵심 내용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연대기 흐름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적 사명에 초점을 맞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99개 핵심 교리를 다룬다.



지난 3월 OGP 인도자반 소그룹 나눔.

수강신청은 각 공동체 양육담당 총무에게 하면 된다. 개강일 이후 소그룹별로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비대면)으로 나눔을 하면 된다. 오범규 장로(OGP 대표장로는 “OGP는 공동체 지체들과의 진솔한

나눔과 고백을 하면서 진한 감동과 도전을 체험하는 기회”라며 많은 성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010-2822-3280 010-4563-237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

대학청년부 ‘홀리스타’ 재개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3년 만에 다시 모인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대학청년부 홀리스타(Holy Star)를 다시 시작한다. 홀리스타는 교회가 청년들의 삶의 터전으로 찾아가는 새벽예배다. 청년들이 직장 and 대학캠퍼스 주변에서 새벽예배를 드리고 삶의 터전

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양재, 여의도, 대학로, 광화문, 강남 등지에서 진행된다. 지난 3월 6일(월) 여의도 홀리스타와 대학로 홀리스타가 재개되었고, 오는 3월 27일(월)부터 광화문 홀리스타와 강남 홀리스타가 재개 된다. 문의: 02-570-7521

이름	시간	장소
양재2부 새벽예배	월~금 오전 6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
여의도 홀리스타	월~금 오전 6시 30분	여의도 정곡빌딩 4층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대학로 홀리스타	월~금 오전 6시 30분	한성대 에듀센터 2층 안디옥홀 (종로구 창경궁로 254)
광화문 홀리스타	월~금 오전 6시 45분	폴바셋 코리아나호텔점 (종구 세종대로 135)
강남 홀리스타	월~금 오전 6시 30분	만렙커피 강남역점 (강남구 강남대로94길 15)

선한울타리 세미나 개최

4월 16일 오후 6시 서빙고 꿈아이홀

사회선교부 선한울타리사역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4월 16일(주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꿈아이홀(신관 2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한울타리 세미나에서는 선한울타리사역을 소개한다. 선한울타리사역은 보육원 보호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들을 돕는 사역이다. 2021년부터 보육원 퇴소 청년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다. 지난해부터는 보육원 아동들과 결연하고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한울타리 세미나에는 보육원 및 보육원 퇴소 청년, 위기 청년을 돕고 싶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15-3434, 3436

이주민선교학교 훈련생 모집

이주민선교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4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이주민선교학교는 국내 이주민 선교에 관한 5대 관점들과 다양한 권역별 종교 상황, 문화, 관습들을 살펴 보면서 타문화권 사람들과 이해하고, 선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다.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미래전략적 관점’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780-8410

‘어린이부모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어린이부모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총성홀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4월 22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어린이 5만 원, 부모 5만 원). 일일 캠프비(1인당 3만 원)는 별도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모와 자녀가 더욱 친밀해지고, 건강하게 의사소통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돕는다. 문의: 010-4528-0477

‘양재 헬로맘-임신, 출산 후 스쿨’ 개강

4월 14일~5월 26일 매주 금 오전 10시 30분 줌(Zoom)

‘양재 헬로맘-임신, 출산 후 스쿨’이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양재 헬로맘-임신, 출산 후 스쿨은 성경적 관점에서 임신과 출산의 의미를 살펴 보면서 이 시기 부부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살피고, 실제적인 대처방안을 알려주는 과정이다. ‘임신, 출산 후 겪게 되는 마음과

리’, ‘성경적 관점의 임신, 태교와 출산’, ‘부부관계와 유아의 신앙과 인성형성’, ‘창조론적 관점에서 보는 가정과 생명’, ‘크리스천 가정의 유아 성교육’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는 임신부와 출산 후 초보 엄마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2만 원.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570-7349

여성사역 연합기도회 개강

3월 23일부터 12주, 서빙고 두란노홀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학교와 마리아행전 연합기도회(이하 여성사역 연합기도회)가 지난 3월 23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렸다. 주부가 선교사(GO선교회)가 ‘말씀과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150여 명의 성도가 참여했다.

여성사역 연합기도회는 3월 23일(목)부터 12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다음세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여성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3278-2425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강생 모집

4월 8일부터 매주 토 양지 비전빌리지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129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1~2주 차 토요일 당일, 3~4주 차 토요일 1박 2일 교육이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5일까지 전화(010-9049-3375)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24가정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가정당 30만 원(자녀동반하면 1인당 5만 원 추가). 하가훈은 성경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와 가정, 부모 자녀 관계를 만들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9049-3375

3월 세례자

■서빙고	박윤하 220907	갈렙	이준석 951212
강대석 690908	박재민 윤주영	유아	
서민혜 891202	오시연 190127	채은솔 210910	SNS
오병학 810513	오정택 오소연	채수빈 박소정	김정훈 980211
유영혜 570810	장은호 210708		김태영 921208
이금재 700908	장덕일 장지혜	여호수아	이준희 991023
정선화 870621	정시우 220412	김지아 850902	정두석 860112
입교	정지윤 이소정	이윤주 920229	
장유진 961027	정은우 191121	황인제 820511	W
유아	정규섭 권영현	입교	입교
김지은 210227	차수아 200809	박선아 910513	강은아 970606
김동우 김민희	차근환 김다솔		김시은 930813
박윤우 220907		CH PLUS	
박재민 윤주영	■대학청년부	입교	

서빙고 만남의 잔치

일시: 4월 2일 오후 5시 / 장소: 서빙고 시온홀 / 대상: 1월 11일~3월 15일 등록성도

가정사역	문지호	김소정	김기석	이경실	최창섭	김정희
김경호	박종우	김정은	김기원			송계숙
김은하	박진희	노승일	김소라	영등포구로	이수	최세정
윤영애	송명섭	전지수	양미경	김 원	전장섭	최중락
장대연	홍옥연		정유현	김진웅	최주영	
		서대문		김창범		OCC
강서	동대문중앙	조소희	신용산	신호진	이춘	이상아
김수경	전희진	최창식	곽지혜	이수경	LEEKANGRIM	
류진규	최성철		김유석	장지혜	사미순	S브릿지
		성동광진	김한기	천세은	심상진	김문경
강촌	동작	강승태	김형재	하지훈	최석규	김성수
이광섭	노용진	이남이	문의삼			송택순
이미희	송홍선	정은정	박재영	용산	일산파주	신경순
황승민	심미선	최준우	백현준	강은애	안진희	유경호
	장기혁	최현범		김아현		이은지
고양은평	최귀자	하세호	양천	김이진	중종로	이진아
구윤관			양신일	박새원	김경록	
	마포	성북		박수정		
관악금천	구현정	김경석	여의도	지상돈	한강	

맛있는 말씀 해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후 12:2)

최근 홍콩 배우 미셸 요(양자경)가 아시아 여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아 화제가 되었다. 그녀의 출연 영화는 ‘멀티버스(다중 우주)’를 다룬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이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다중 우주는 실제 과학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단순히 재미있는 판타지로 보면 된다. 그런데 유신진화론자들 중에는 성경에 표현된 “하늘들, 셋째 하늘” 등이 다중 우주를 암시하는 거라고 주장한다.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후 12:2),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왕상 8:27).

유신진화론자들은 빅뱅과 진화론 모두를 100% 수용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서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물질적인 세계로만 해석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과학적으로도 틀렸고, 성경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 다중 우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지구와 똑같은 지구가 다른 우주

에 존재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다중 우주 이론’이 나온 이유는 한 번의 우연한 빅뱅에 의해서 초정밀 수준의 질서가 만들어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지구와 우주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미세 조정되어 있어서 ‘인간 중심 원리’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은 인정한다. 그런데 인간 중심 원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우주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과학자들은 수많은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지면서 극히 드문 확률로 우리가 살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 우주가 만들어진 거라고 해석한다. 수많은 우주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지금 우리의 우주는 그중 하나이며, 극히 있을 수 없는 질서 있는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생기는 각각의 우주는 물리 법칙도 서로 달라 알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다는 것이 다중 우주 이론이다. 따라서

다중 우주 이론은 증명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영화에 나오는 다중 우주는 ‘다중 우주 이론’과는 전혀 다른 허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표현한 “셋째 하늘”은 무엇일까? 셋째가 있다면 첫째, 둘째 하늘은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첫째 하늘을 새가 날아다니는 푸른 하늘과 같은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의미하거나 사탄도 존재할 수 있는 영적 영역이라고, 셋째 하늘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영적 영역이라고 해석한다. 성경은 하늘을 단수 또는 복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늘이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하늘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유신진화론자들처럼 오직 물리적 공간만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물리적 공간으로써의 하늘과 영적인 영역으로써의 하늘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

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했다. 지금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영적으로만 만날 수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실패한 인생도 멀티버스(다중 우주)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다. 멀티버스가 아니더라도 다시 태어나는 삶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영화나 드라마도 인기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다음 생이나 다중 우주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한 번뿐인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이 탄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달라진 운명, 바른 진리를 선택할 이유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딸을 위해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딸을 둔 성도입니다. 딸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딸의 우울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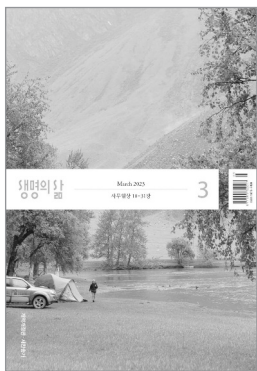
딸은 참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친절하고 애교 많은 딸은 어딜 가나 예뻐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고, 혼자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춘기가 늦게 왔거나 싶었는데 어느 날 딸의 손목에서 자해 흔적을 봤습니다. 온갖 설득과 오랜 실랑이 끝에 상담치료와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딸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의 유일한 외출은 병원에 갈 때뿐입니다. 교회에도 몇 번 데려오려고 했는데 소용없습니다. 딸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혼자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 수시로 문을 열어봅니다. 딸은 그런 제 모습이 못마땅한지 자주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족들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보내는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도록, 딸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딸에게 나쁜 생각을 심는 사탄의 역사가 끊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딸을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 역명의 성도

3월 27일~4월 2일
〈사무엘상〉 8:15~31:13;
〈유다서〉 1:1~25



장에 나가지 않으면 화를 당할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난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위기 때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묵상하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린다.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할 거라고 말한다. 몰락하는 사울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위기를 넘긴다. 블레셋 방백 아기스의 호의로 시글락에 정착하던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국면에서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놓인다. 그러나 다윗의 배신을 염려한 블레셋 방백들의

반발로 다윗은 참전하지 않게 된다.

묵상포인트 2: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다. 아말렉이 성읍을 약탈하고 불태우자 부하들은 리더인 다윗에게 분노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용기 내 아말렉을 추격해 무찌른다. 다윗은 전리품 배분에 대한 구성원들의 갈등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한다. 반면 하나님을 버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묵상하자.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아말렉의 공격으로 성읍이 불타고 사람들이 잡혀간 모습을 보게 된다.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말렉을 뒤쫓는다. 아말렉 사람이 버린 병든 종에게 음식을 주고 회복하게 한 다윗은 그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치고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는다. 전리품 배분 문제가 발생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강조하며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눈다. 그 무렵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는다.

묵상포인트 3: 〈유다서〉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는 서신이다.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 왜곡된 진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하고, 자신을 지키며, 거짓에 빠진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야 한다. 왜곡된 진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한다.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걷고, 발람의 길을 가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는 자들이다. 예녹의 예언과 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유다는 마지막 때 성령이 없는 자들이 일으킬 분열을 말하며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한다. 또 미혹 당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명한다. 성도를 보호하고 흠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에 집착했다. 걱정과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구하자.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위기도 하나님을 찾을 기회로 삼는다. 성도의 삶에서 의지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삶을 위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자.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은 늘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방법을 찾아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라!

“친구들의 SNS를 보면 저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을 사고, 멋진 곳을 여행가고... 남들 다 화려하게 사는데 저만 못 그러는 것 같고,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는지 자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와 오늘날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감을 얻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이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公人)들에게만 주어졌다면, 이제는 개개인이 마음만 먹으면 ‘셀럽’ (유명인사)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다. 많은 사람이 화려한 삶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하고,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먼저 이 시대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좋은 것을 자랑하는 삶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시대의 흐름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드러나는 매우 단편적인 현상일 뿐이다. 만약 우리의 관심이 명품과 맛있는 곳을 여행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이미 자

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바로 ‘복음’이다. 낮은 곳을 향해서 섬기는 손길과 사역의 내용을 세상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공유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돈, 명예, 권력’에 두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신의 삶에서 복음적 선택을 자랑하기를 소망한다.”

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교적 메시지를 나누기도 한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한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자랑거리를 찾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

복음에 뒤흔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에게 복음을 자랑하기보다 다른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 사도 바울은 삶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

람에게요, 다음으로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롬 1:16).

사람들이 부와 명예, 권력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다음세대는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었고, 미디어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있다. 미디어 공간에서도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어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SNS 공간이 단순히 무엇을 먹고, 입고, 가졌느냐를 자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신의 삶에서 복음적 선택을 자랑하기를 소망한다.



이우람 목사
(CHPLUS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Stop Sign’을 만나면 멈춰라!

운전 중에는 교통 표지판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미국 여행 중에 운전하는 외국 여행자가 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처음 미국에서 운전할 때 익숙하지 않은 것이 ‘Stop Sign’이다. 한국에서는 적당히 상황 봐서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운전해왔던 사람들은 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운전자는 Stop Sign이 보이면 무조건 차를 멈춰야 하고, 머리를 돌려서 좌우를 살핀 다음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지나가야 한다. 만일 이 법규를 어기고 그냥 지나가면 때로 숨어있는 단속경찰에 의해서 벌금을 물게 된다. Stop Sign이 있다는 것은 그 지점에서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잠재적인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Stop Sign을 보면 반드시 멈추고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자신이 살았던 나라 지역의 교통 법규에 없던 생소한 법규라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Stop Sign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다. 단순한 경고 문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통행하는 차량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고, 운전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인명사고나 대물사고의 위험이 많으니까 반드시 3초 정도 멈추고 지나가야 한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다. 3초 정도의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운전 중에 3초 정도면 수십 미터는 주행할 수 있는 짧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잠시라도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아야 한다는 것은 때때로 여간 인내가 필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여행자이거나 현지 교통 법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규칙이 우리의 습관에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현지의 법규와 규칙에 맞춰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운전자의 필수적인 자격이라 할 수 있다.

결혼 생활 중에 만나는 Stop Sign이 있다.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 도로에서 만나는 표지판처럼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다. 결혼 생활 중에 만나는 Stop Sign은 매우 변칙적이며, 유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안개가 자욱한 도로에서 보는 표지판처럼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운전자가 집중해야만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과 같이 결혼 생활에서 만나는 Stop Sign은 때로 정말 희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유동적이고 희미하게 나타나는 Stop Sign을 남편과 아내는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해야 한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Stop Sign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시작될 때다. ‘부아가 치민다’는 말이 있다. 부아는 폐를 가리키는 우리말이다. 화가 날 때면 숨이 가빠지고 가슴에서 뜨거운 것들이 쌓이면서 코와 입으로 강력한 것

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한다. 화는 관계에서 절제된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부아가 치밀어 오를 때까지 방치하거나 분노의 에너지를 끝까지 키워서 폭발하면 부부 관계에 분열과 심각한 다툼을 만든다. 마음에 분노의 씨가 돌아나려 하는 것을 느낀다면 자신 앞에 Stop Sign이 켜져 있다고 여기면 좋겠다. 여기서 3초 정도 멈춰서 좌우를 바라보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야 한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분노의 씨가 돌아나기 시작할 때 참지 못하고 몇 마디 더 배우자에게 던지고, 다시 공격당하는 악순환 상황이면 작은 분노의 불꽃이 큰 산을 태워버릴 만큼 건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다. 시작 단계에서 잠시 멈추는 것이 자신과 배우자에게 유익하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잠시 멈추고, 원망과 억울함이 생겨서 쏟아붓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더라도 Stop Sign을 인식하고 멈출 수 있다면, 부부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부부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대방과 반대되는 생각과 느낌이더라도 부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성숙하고, 견고한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표현과 대화가 너무 직설적으로 절제와 성숙함 없이 때로 불꽃 튀기는 양상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만, 미성숙함으로 표현되는 것은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다.

부부는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서슴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다. “당신 생각이 틀렸다”,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느냐?”라는 식의 부정적인 표현을 절제 없이 표출할 때도 있다. 분노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과 상황이 파악되더라도 서로 멈출 생각이 없는 때도 있다. 멈춰야 하는 것을 알지만 굳이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멈추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상대방과 물려섬 없이 쏟아내는 사례도 있다. 부부 관계에서 Stop Sign을 보고도 멈추고 싶지 않은 욕망을 따라서 폭주 본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예상하듯 좋지 않다. 멈춰야 한다. 누군가 한 사람은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다면 부부는 위험지역을 무사히 통과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마 26:47~56).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땅 11:00 705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울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 (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010-8285-6435 2023년도 온누리교회 식자재 납품 업체 입찰 공고 품목: 농산물, 수산물, 육류, 공산품, 소모품 장소: 온누리교회(서빙고, 양재, 양지) 계약: 6월 1일~ 2024년 5월 31일(1년) 선정: 모집 분야 전 품목(농산물, 수산물, 육류, 공산품, 소모품) 입찰 참가 업체, 대기업 군에서 1개 업체, 중소기업군에서 1~2개 업체 마감: 4월 7일(금) 17:00 문의: 서충관 부장(010-3927-0705) *상세 내용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참고 온누리M센터 물품 기증 요청 모집: 디지털카메라, 수동카메라, 노트북, 컴퓨터(포토샵 교육용) 용도: 귀국하는 이주민 형제들의 사진관 개업을 위한 기초직업훈련 문의: 안산 온누리M센터(010-7550-2425)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 캠퍼스, 타 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 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의료선교팀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3월 31일 금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이선희 권사(010-318-0607), 조동욱 목사(010-7432-0195) * 의료 선교 사역에 관련 있거나 관심 있는 성도님을 적극 초대합니다.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아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 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	--	--	--	---

부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O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중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10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O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동 O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양지 O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터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르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선교 미디어 CGN

어디서나 모두에게

CGNTV가 개국 18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이름 CGN으로 나아갑니다

CGN

everywhere, for everyone

복음이 필요한 곳 '어디서나' 통로가 되고,
함께하는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꿈꿉니다.